

서울대기독인 연합 증강예배

하나님께서 “NO!” 라고하실때

일시 : 2015. 6/1(월) 오후 6시
장소 : 26동 대형강의실
말씀 : 역대상 17:1-15
강사 : 제승도 목사님 (전 서울대 JOY 간사)
문의 : 이경권 (010.6888.6108)



증강예배

2015년 6월 1일 오후 6시에 26동 대형강의실에서 서울대 기독인 연합 주관으로 개강예배를 드린다. 전 서울대 JOY 간사 제승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NO!’라고 하실 때 (본문 대상 17:1-15)”라는 제목으로 설교한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2면 캠퍼스 사역자 칼럼, 학생기자 퇴임사
- 3면 서기연 중앙위원이 드리는 글, 선교지에서 온 편지
- 4면 단기선교 간증, 이 한 권의 책
- 5면 [특집] 기독인 선배의 글
- 6~7면 학내 공동체 소식
- 8면 신입생 간증

교수 칼럼

장성한 자가 되라

얼마 전 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재미삼아 정신연령을 검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나이를 입력하고 ‘꿈을 가지고 있느냐’, ‘잘 참는 편이냐’ 등 간단한 질문 서른 두개에 답하면 결과를 알려주는데 저의 경우 정신연령이 실제 나이의 80%로 나왔습니다. 근래엔 젊어 보인다는 인사말이 싫지만은 않던데 그래서인지 재미삼아 했던 테스트지만 ‘그래 아직 젊어!’라는 생각에 한결 마음이 즐겁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적으로 젊다는 게 과연 기쁘게만 받아들일 일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젊기에 뭔가 더 도전할 수 있고 생동감이 있어 좋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정신연령이 낮다’는 것인데 이는 나이에 비해 생각이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젊음을 유지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날로 성숙해지는 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40부터 불혹(不惑), 지천명(知天命), 이순(耳順), 종심(從心)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5:13~14절에 정신적으로 어린자와 장성한 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진리는 나의 빛》을 읽고 계신분이라면 대부분 크리스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믿음을 갖게 된지 30년이 넘었고, 직장인 서울대와 매주 출석하는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 나름 열심히 감당하려 하고 있으니 신앙에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 장성한 자와 대비되는 사람은 어린 아이인데 13절에서 어린 아이는 의의 말씀, 즉 ‘의’에 관한 가르침(teaching about righteousness)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자인 반면에 14절의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도 ‘의’와 ‘선’은 너무나도 고귀한 개념으로 개인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요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와 선악은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적용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정의(definition)조차 내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제가 이해하는바) 성경적으로 볼 때 의인은 죄인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 ‘의’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창15:6, 갈3:11). 이런 견지에서 히브리서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창2:17)만큼 크리스천들을 ‘철학하게’ 하는 대상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일인데(창3:22)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어겨가며 하나님처럼 되려하다 망하게 된 것이지요. 엄밀히 따져보자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과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로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지 선악을 분별하게 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즉 타락한 인간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틀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에게는 힘들고 불편한 것이 악이지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봐도 흑백이 분명한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판단해야 하는 것이 걸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심령에 관한 문제이면 무척 어려워집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심령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있어’ 보이기도 해서 한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제가 분별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선악이 아니라 제 자신의 선악이었습니다. 내 속에서 피어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로 가장한 자신의 욕심 추구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듯한 상태에서도 너무나 쉽게 악한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자신은 죄와 유혹에 너무나도 약하여 별로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에 혼자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송재준 교수 (에너지자원공학과, 서기연 지도교수)

기자 퇴임사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은 제가 캠퍼스 생활을 하며 배운 것 중 가장 값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를 정말 아끼시며, 아침저녁으로 가꾸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처럼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학교에서 각 지체들과 그들의 연합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과 고민, 그리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아 저의 한 마음 지키기도 버겁다 느낄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단대 기독교인 모임과 선교단체를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

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격정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삶을 채우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저에게서 눈을 들어 동역자인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연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 기자로 활동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선 제가 이전보다 더 많은 지체들을 발견하고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소망을 품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소식지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 캠퍼스에서 드러지는 다양한 모습의 예배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예배가 결코 독립적인 단체들의 모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들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몸짓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마음이 기쁩니다.

저는 우리의 몸짓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 사람과 단체가 파편화되어 있지 않고, 연합하고 있는 것도 생명이신 주님이 심장부에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혈액이 온 몸을 돌 듯이 그분의 사랑과 임재가 우리 모두를 돌아 하나로 묶고 연합하게 하십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몸임을 알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진리는 나의 빛》이 단순히 사건을 알리는 소식지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나빛을 편집하고 인쇄해 내는 과정 또한 캠퍼스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이곳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지체들의 몸짓을 글로 엮어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지체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그동안 저의 잦은 연락과 부탁에 얼굴 찌푸리지 않고 응해주신 기고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글 하나, 하나를 찬찬히 읽다보면 그 안에 많은 어려움, 노력, 은혜, 기쁨 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짓의 한 조각이 아름답게 사용되길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께 다른 지체들의 움직임을 사랑의 눈으로 돌아봐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서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에 진나빛이 선하게 사용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지애 (종교 11)



“서울대에 교회가 있어요?” “국립대에 어떻게 교회가 있나요?” “캠퍼스 안에 있어요?” 밖에서 가끔 듣는 질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땅 전국 방방 곳곳에서 20여 개 이상의 비기독교재단 캠퍼스 대학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포스텍 교회, 광주과학기술교회, 경북대학교교회, 카이스트교회, 충남대학교교회, 광운대학교교회, 고려대학교교회, 경희대학교교회, 한국외대교회, 차의과대학교교회 등입니다. 이 대학교회들의 등장은 지난 130년 한국 기독교 역사상 특별히 새로운 사건이 분명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에 근거하자면, 이 시대 이러한 한국 대학교회들의 동시다발적 출범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울대학교회는 2003년 대학총선교회와 서울대기독교교수회를 중심으로 행해진 약 3년 준비기간의 열매로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회에는 학부예배, 대학원예배, 국제(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속 10여 교수님 가정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섬김으로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부터 몇 차례 주일예배설교를 위해 방문하다가, 2012년 3월에 정식 부임했습니다. 주중 평균 5일가량 출근하며, 3년 3개월째 섬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회 사역 기간은 저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새로 배우고, 느끼고, 감사하게 하며, 새로운 것을 고민할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선 회개할 것은 서울대학교회를 섬기면서 역량의 부족함에서 야기된 여러 한계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부임할 때 개인적으로 지난 20년 간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대학생들을 섬긴 경험과 15년 이상 출근 신학대학(침신대, 목원대)에서 전공인 조직신학과 종교철학을 가르쳐온 경험을 빌미삼아 겁 없이 교만했음에도 이 지면을 빌어 꼭 회개할 부분입니다. 반면에 사역자로서 가장 큰 보람은 신앙이 전혀 없던 형제, 자매들에게 직접 복음을 심고, 교육을 거쳐 세례를 준 일, 또 신앙이 연약한 지체들을 정기심방이나 상담, 성경공부를 통해 양육하며 그들의 성장과 회복을 지켜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이 장차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 자원들 일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요 대체할 수 없는 보람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에게는 대학교회 목사와 신학교 교수로서 동시에 사역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면서 서울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지체 공동체들의 연합에 기여하는 통찰의 지혜를 구해봅니다. 그것은 대학교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서울대학교회가 세워지기 전 서울대 안에는 이미 학생선교단체들이 있었고, 대학총교회를 비롯한 여러 지역교회가 캠퍼스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 서울대학교회라는 또 하나의 선교 진지를 세우셨습니다.

과연 서울대학교회는 지역교회일까요? 캠퍼스 선교단체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현재 서울대학교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기독교수협회와 직원신우회 등 여러 지체 공동체들과 서울대학교회 사이의 중복되지 않는 정체성과 소명의 자리를 확인하고 공유시키게 하여, 장차 많은 이들이 그토록 목말라하는 서울대학교 복음화를 위한 유기체적 연합의 역량을 증진시키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대학교회”는 특정 지역(캠퍼스)에 상존하고 있는 이상 “지역교회”(Local Church)입니다. 대학교회의 지역교회적 특성은 이렇습니다. 1) 모두 독자적인 주일예배와 성례전(세례식, 성찬식)이 집행됩니다. 2) 모두 장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가족공동체로서의 지체들이 있습니다(현재 서울대학교회에는 섬김이 역할을 하는 10여 분의 서울대 교수님 가정들이 있음). 3) 모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풀타임 목회자가 상존합니다. 반면, 부인할 수 없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1) 대학교회는 교회

구성원(지체들)이 주로 재학생이나 교수, 직원 등으로 제약됩니다. 2) 대학교회는 지역교회와 다르게 특정 캠퍼스 구성원들(주로 학생)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한 섬김과 양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둘째, “대학교회”는 “선교단체”(Para Church)와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교차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우선 공통점입니다. 1) 특정 캠퍼스에서 주로 재학생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2) 캠퍼스 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함께 품기 위해 주로 초교파 공동체(특정 교단이 아닌)의 정체성을 지향합니다. 3) 캠퍼스 복음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공유합니다. 반면 분명한 차이점도 발견됩니다. 1) 선교단체는 사역자와 학생 할 것 없이 대부분 구성원들의 주일예배(성례전) 출석 교회가 따로 존재합니다. 2)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여러 캠퍼스에서 함께 사역합니다. 3) 선교단체들의 캠퍼스 내 주요 사역 대상은 대부분 학부학생들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 보자면, 대학교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곳에 소명을 받은 지역교회입니다. 서울대학교회는 서울대 캠퍼스라는 특정 지역에 상존하는 지역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대학교회는 서울대 캠퍼스 복음화라는 하나의 목적에 함께 헌신하는, 여러 지역교회, 선교단체들, 서울대기독교교회, 직원신우회 등과 뜻을 같이 하는 지체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2012년 학복협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들의 교회 다니는 비율은 17%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10%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에는 학부생 1만6천명, 대학원생 2만 명(논문과정 중 포함)으로 가정할 때, 3만 명 이상의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품고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복음 선교의 자원들이 요청됩니다. 서울대학교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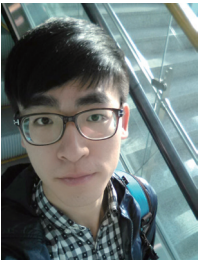
서울대 캠퍼스에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기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교회나 선교단체와는 구별되는 대체할 수 없는 소명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역자로서 서울대 복음화에 순전히 헌신하는 대학총교회를 비롯한 몇몇 지역교회들을 보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일차적 소명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사역을 넘어서 캠퍼스 선교에 특별한 헌신을 감당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캠퍼스 밖에 있다면 일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겨야 할 소명이 있기에, 캠퍼스 선교에 대한 그 많은 열정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사역 역량의 집중에는 한계가 있고, 일관되게 헌신 할 풀타임 사역자와 섬김이를 따로 전격 파송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편 선교단체들은 서울대 복음화에 헌신해 온 산증인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단체들의 사역 역시 계속 발전되고 증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활동을 하는 기독교회 교수님들의 상당수가 선교단체 출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캠퍼스는 선교단체의 열정과 전략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필요가 다양하고 규모가 방대한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대학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중 하나는 선교단체 역량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주말 캠퍼스 사역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대학교회의 주목할 만한 가능성과 기대는 캠퍼스 사역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독교교회 교수님들 자원을 오직 캠퍼스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복음의 진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대학교회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십중팔구 이 자원들은 일반 지역교회에서 다른 사역에 헌신 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은 지역교회, 선교단체들과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 협력하여 캠퍼스 선교라는 하나의 목적을 지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군대의 형제 공동체들입니다. 하나를 위한 유기체적 연대! 감히 말 하건데, 서울대학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은 서울대 복음화의 동지들인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와 기독교교회를 비롯한 모든 지체 공동체들의 후원의 역량도 한층 증진시키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석종준 목사 (서울대학교회, 침신대 초빙교수)

서기연 중앙위원이 드리는 글

몸된 교회를 보는 기쁨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서기연 중앙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심리학과 09학번 이진현입니다. 학교를 이만큼이나 다니면서도 중앙위원으로 소개를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글을 쓰고 있으니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지난 2014년 2학기 동안의 휴학 생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휴학을 했던 이유는 개인적인 심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어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고민에 일종의 해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지향점과 기대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선교단체 대표를 지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느끼고,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하나 되지 않는 모습, 고민, 눈물이라는 현실을 접한 이후에 근본적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의 휴학은 귀를 막고 집으로 도망한 거나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학기의 시간 속에 저를 가장 크게 울렸던 말씀은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혹은 신앙적 행위와 사역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경의 명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연합함 때문에 서로 합의하고 계약하여 만든 것도 아니고, 신자들의 공통의 목적 때문에 동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서고, 그 연합이 각 사람의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못하면 뺏다가 잘하면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궁극적인 결과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예 머리와 몸으로 붙여버리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각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학하면서 이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단체가 이해관계와 성취로 기준을 삼을 때, 교회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한 사람을 포기

하지 않고 삶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중보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결코 자신의 신앙적 수준의 고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옆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몸에 아예 익어있는 모습들을 더 생생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서기연 중앙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보다 기대만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울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터무니없이 많음을 지금도 이미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붙잡고 모두가 함께 울어주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의 성공이 아닌 옆 공동체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캠퍼스로 복음을 들고 나서고, 이미 부족한 상황에도 자신의 재정과 시간을 후원하고, 가장 고되고 더러운 일을 자처하는 모습들..... 취입 한 자리 위해서 기꺼이 남을 버리는 이 시대에 세상이 평하기에 미쳤다고 할 일들이 몸된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꺼이 사랑하시는 서울대의 작은 교회들 하나하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더욱 일하시기에 저도 기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주기도 하고 실망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말한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는 능력과 지혜와 살아갈 방법이 되어서, 비록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모두가 노력하고 간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학생과 교수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어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이 생생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확산되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위원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해서 가끔은 이 소망을 생각조차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소망을 구체적인 현실로 이루어가실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참여하며, 이루실 일들에 대한 찬양을 드리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서울대 모든 기독인 지체 여러분과 함께함이 큰 영광과 감사입니다! 더욱 사랑하도록, 깨어지도록, 내려놓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현 (심리 09)

선교지에서 온 편지

신약 성서의 땅에서 만나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정보공학부 08학번 강태화입니다. 신약성서의 땅 터키에서 이렇게 서울대의 기독인 여러분께 소식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3년 전 겨울 군 제대를 한 이후 유럽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여행지로 터키에 왔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많은 군사를 남한에 파병하여 형제의 나라로 알려진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는 한국공원이 있습니다. 한국공원은 석가탑을 본떠서 만든 탑이 서있는데 그 탑에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은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문화도 종교도 다른 이역만리 타국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운 그들의 희생에 숙연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그들에게 이 빛을 갈을 길은 없지만 그들의 후손들에게 진

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빛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털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 때의 생각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 인도하심을 좇아 가다 보니 어느새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 9월이었으니 어느새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터키어를 배우면서 말테페 교회를 섬기면서, 터키의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98%이상이 무슬림이라는 이 땅에서 지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역시 내 자신의 연합함입니다. 공동체 속의 수많은 모임들과 예배에서 떨어져, 입대를 했을 때도 공동체의 신앙이 아닌 스스로의 신앙으로 서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 이후에도 기독교 공동체에서 많은 훈련들을 받고 여러 직분을 감당했음에도 이 땅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연합함 가운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가운데서 제 자신을 이끄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에 대해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열매가 열리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긴긴 겨울이 지나고, 봄비를 맞고 돌아난 꽃들이 지고, 여름 장마와 폭풍을 이겨내고, 비로소 익어가는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열매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이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맺히고 익어가는 성화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을 열매에 비유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또한 터키 땅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인구의 98%이상이 무슬림이기도 하고, 미성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릴 적부터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을 교육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변질되었기 때

문에 알라가 마지막 선지자 무함메드에게 직접 변질되지 않은 경전인 쿠란을 주었다는 것,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이슬람의 교리들을 듣고 자랍니다. 그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문란하다라는 등의 편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 전에 두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친구는 저희 팀원의 친구로 교회에 몇 번 나오다가 부활절 공연 때 함께 연극도 했던 친구고, 한 친구는 지난 겨울 신호교회 단기팀의 전도집회와 이번 부활절 전도집회에도 와서 공연을 보고 교제했던 친구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이곳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몇 번 와보게 되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곳에서 하는 일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적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청년의 때의 일 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너무나 귀하고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려고 할수록 되려 제가 계속 받는 것을 느낍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무슬림의 땅에서 살며 느끼는 것은 이들의 종교의 근간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이라면 꼭 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의무, 수많은 율법 조항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 없는 구원. 이들의 삶을 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지금 잠시 터키를 위해서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이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땅,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있던 이 땅에 다시금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힌 편견의 벽을 허물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실 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터키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할 것을 소망하며... 이스탄불에서 강태화 드림.

강태화 (전기정보공학부 08)

음메음메~ 메에메에~ 한국에서 길고양이를 흔하게 볼 수 있듯 드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소, 양 등의 가축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라, 피부색과는 반대로 하얀 눈망울과 새하얀 치아를 가진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 나라,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있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25번째로 가난한 나라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이사야 52:7)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떠나면 땅 탄자니아에 도착했다.

나에게는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이자 전도여행이었기에 가슴 설레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하면서 그곳에서 난생 처음 수많은 흑인들을 보았는데 우람한 체격을 가진 남성도 있었고, 귀여운 아기를 돌보는 젊은 여성도 있었다. 처음 겪는 환경 가운데 나는 웬지 위축되기도 하고, 행여나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 그러나 두려움은 잠시. 탄자니아 아루샤에 있는 숙소로 도착 후, 펌프 우물을 설치해주는 일을 하는 NGO인 SFI(Serving Friends International) 탄자니아 직원들이 건넨 '안녕하세요!'로 시작된 그들과의 조우는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타지에서 외국인에게 들었던 첫 번째 인사말인 '안녕하세요!'는 처음 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 반대로 이후에 활동을 하며 만난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현지어인 스와힐리어로 인사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했다.

탄자니아는 물이 부족한 나라이다. 도시에서는 정부가 수도를 통해 물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런대로 사정이 낫지만 시골에서는 물을 길어오기 위해 펌프 우물이 있는 곳까지 수km를 걸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SFI 단원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좋은 물이 있는지 없는지 탐사하기 위해 땅 속의 저항을 측정하는 서베이 활동을 했다. 지하수 탐사를 위한 서베이를 하러 갈 때면 그 지역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단기선교 간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땅, 탄자니아



구경을 나오시곤 하셨다. 그 사이로 뛰어다니는 꼬마 아이들의 호기심이 가득 찬 새하얀 눈과 환한 미소는 거부할 수 없는 귀여운 모습이였다. 우리 팀은 때로는 이슬비에 옷을 젖혀가며, 때로는 피약벌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진행되었던 서베이 작업 틈틈이 웅기종기 모여든 아이들과 에어로켓, 풍선 헬리콥터 등을 만드는 과학캠프를 했는데, 오랜 작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이 불어넣어졌던 시간이었다. 서베이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초등학교에서 우물이 터졌다. 우물 펌프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초등학생들, 선생님들이 내질렀던 환호성과 기쁨의 소리는 땀에 축축하게 젖은 우리들의 마음과 탄자니아 땅에 가득 울려 퍼졌다.

또한 작업을 할 때마다 닭, 염소, 양 등을 잡아 우리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시거나 목마를 때 탄산음료를 선물로 주시던 그 마음과 정성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후에 안 일이지만 대다수의 그곳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쉽지 않고, 탄산음료는 정

말 귀해 잘 맛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치킨을 시켜먹거나 음료수를 사먹을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듣고 돌아보니 그분들이 우리에게 대접했던 음식과 음료는, 정말 최고의 값진 것으로 정성들여 준비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분들의 정성어린 대접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났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학년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탄자니아 아이들은 우리에게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었다. 준비해 간 여러 과학캠프 준비물들을 꺼내 보여줄 때, 아이들의 순수하고 호기심 가득한 반응에 우리는 흥이 절로 났다. 여러 과학 원리들을 설명해주고 그것들을 아는지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적극적이고도 활기차게 반응해 주었는데, 교육자로서 혹은 낯선 외국인으로서 느꼈을 수도 있을 법한 우리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다가와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어느 토요일에 서베이를 하다가 우연히 빨래하던 아이들을 만났다. 이내 우리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주러 간 사람들임에도 도중에 붙잡아 벌금을 물리는 경찰들이나, 외국인들은 모두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위협하며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으로서 혹은 그들과는 다른 이방인으로서 현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끼기도 했다. 그렇지만 전도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사귀고 정들었던 탄자니아 친구들과, 광활한 땅, 파란 하늘, 보석같이 박힌 별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고, 내 마음은 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에 더욱 섬길 수밖에 없는 땅이야!'라고 자꾸만 외치는 것 같았다. 한국에 돌아와 편한 잠자리와 배부른 음식에도 그곳에서의 기억이 문득문득 나고 그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탄자니아의 매력에 빠진 까닭이 아닐까?

전소망 (종교 14)

이 한권의 책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먼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신앙적인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울 시내에서 하는 큰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매 방학 때마다 가는 수양회보다도 더 큰 장소에서, 더 많은 인원이 함께 기도했고 찬양했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으레 이런 큰 규모의 예배나 집회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고 하지요. 하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곳을 향할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왜 우리의 사회는 변화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신앙적인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음 속 어딘가에 답답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 고민이 무뎠고 이런 제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하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는 앞서 제가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 저 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많은 서기연의 형제, 자매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문제겠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빈번하게 고민의 주제로 떠오르는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제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이유는 '신앙과 실천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는 '개인이 변화하면 문화가 변화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학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그리고 문화변혁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개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변혁에 대한 대안적인 견해나 권력에 대한 주장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서울대의 이야기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1년 동안의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의 중앙위원 임기를 마쳤습니다. 후배들을 사랑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감동받아 시작했던 서기연 OT준비팀을 통해 캠퍼스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 중앙위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충분히 우리 학교를 사랑하고 품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1년여의 중앙위원 임기를 돌아보니 제가 서울대의 기독교인 연합을 사랑하고 그 안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했지만 서울대라는 캠퍼스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듭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서 다양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게 보기에 가장 핵심은 '우리 사회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온 천하에 다니며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생활 속으로 우리의 사람들을 파송했는가?의 관점에서 서기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연합 안에서의 즐거운 교제와 평안한 안식에만 머물러있는 것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며 작년 한 해 중앙위원이라는 자리와 기연 안에 간혀 세상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시간과 또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하고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지체들에게 이 책이 하나의 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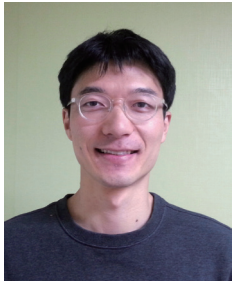
김유진 (기악과 피아노전공 11)



특 집

기독교인 선배의 글

세 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도 서기연 대표를 역임했던 외교학과 00학번 함중규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귀한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졸업한 지 벌써 8년째가 되었지만, 함께 예배 드리며 가졌던 그 감격들은 제 마음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들이 고등학교 때 겪는 사춘기를 대학교에 와서 겪은 저로써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대학생활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가졌던 세 가지 질문들을 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에 대학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입시의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이전 고등학교 때의 모범적인 듯한 모습은 사라지고 술과 미팅 등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는 모습들이 제 자신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위와 같은 것들이 잠시의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삶은 피폐해져 갔고 이로 인해 회의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친구들과 놀다가 새벽 6시에 잠에 들고 오후 1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 수업도 많이 빠지게 되었고 삶에 대한 회의감은 더욱 깊게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자 저는 스스

로에게 “나는 누구이고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써 교회를 빠짐없이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저는 2001년 9월 저의 막내누나를 통해 복음제시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며 주인이심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잃었던 저는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진저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그분의 덕을 전하기 위해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나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더 행복해 보이는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너무나 큰 감격에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루하루 생활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했지만, 한 가지 질문이 제 머리 속을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나보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기쁨은 분명한 것이었지만, 제 친구들이 저보다 더 밝아 보였고 더 행복해 보인다는 느낌은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었지만, 식사기도를 할 때, 땀뻑하게 기도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니 꽤 오랜 시간을 불분명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7월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 아픈 순간이었으나, 그런 고난의 시기 가운데 주님을 저를 더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기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4년간 고민해왔던 질문은 단번에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찰나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며, 오

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 판에 확실하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불확실한 자신의 모습, 미래로 인해 우울해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저는 2007년 2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랜드”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외무고시를 준비하며, 외교관이 되는 것을 꿈꿨지만, 2번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취업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적응도 잘 못했었고 또한 비즈니스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잘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알게 하였고 그곳에서 제 역할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2007년에 입사하여 9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매 순간 하나님의 순결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과 고객을 섬기고, 고객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 저에게 주신 부르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이며 더욱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에게 위의 3가지 질문들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질문들에 대해 주님께서 즉각 응답해주시지 않고 마음의 고통이 더해갈 때, 많이 힘들 적도 있었지만, 주님은 결국 신실하게 응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보이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서울대 기독교인 지체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중규 (2006년 서기연 대표, 이랜드 근무)

직장생활에 대한 기독교인 선배의 조언

먼 길을 가려는 당신을 위한 소박한 조언:
짧은 직장생활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부 경영학과 06학번, 통계학 석사 14학번 정희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부 학번과 석사 학번 사이의 간격이 꽤 긴 이유는 제가 학부를 졸업한 후에 2년 반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상당수의 학부생 여러분 중에는 (빠르면 당장 7월부터) 졸업 후 사회로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하시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직장 생활을 통해 개인적으로 느꼈던,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위해 학부 때 준비하면 좋으리라 생각되는 네 가지 정도를 짧은 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부 3, 4학년일때,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 그 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음..... 취업해야지,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가 친구들에게 했던 불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저는 회사에 들어와서 한동안 업무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고민하기는커녕 매일의 점심/저녁 식사만이 유일한 즐거움인, 그야말로 ‘밥만 먹고 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직장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믿음으로 기대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디테일에 강하시고

기억력이 좋습니다.)

둘째,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을 붙잡으십시오. 흔히 캠퍼스 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옛날에 비해 많이 침체되고 적대적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각자가 가게 될 직장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캠퍼스에서는 선교단체나 과거 모임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또 원하는 만큼 믿음의 동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만, 직장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믿음있는 형제를 찾기는..... 정말로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서 자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 공동체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는 전도서 4:12의 말씀과 같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믿음을 불드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본인이 가려는 직장의 어려움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카이사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학부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친구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위 ‘카더라 통신’ 으로부터 나오기가 쉽고, 이럴 경우 직장 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감상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 취업박람회 부스 등을 통하여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상담을 할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적어도 그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분을 두 분 정도 만나보고, (가급적이면 크리스천이신 분/ 크리스천이 아닌 분을 모두 만나보는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상반된 시각에서 같은 대상을 관찰하면 또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근로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분야 특유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진로를 놓고 선택의 갈림길에 있으시다면, 본인이 하려는 일이 해야 할 일, 잘 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인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다소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잘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로,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가지 이상이 심각하게 기준 미달이라고 판단될 경우,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만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 적성에 맞지 않아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거나 / 본인은 원하지 않으나 주위 사람들이 강력하게 권유하는 경우) 해당 진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두서 없는 글을 마무리 하며 드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 그리스도인에게 직장이라는 곳은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라기 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느낌이 강하지 않나 하는 것 입니다. 낮은 환경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비성경적인 관점, 그리고 한국 특유의 기업 문화로 인한 적지 않은 근로시간은 굳은 사명감과 부푼 가슴으로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는 매우 힘겨운 고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리가 휘청거리고 후들거릴지라도 믿음 안에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뒤따라 올 믿음의 후배들에게 큰 힘과 귀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힘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찬 (경영/수학 06, 졸업생)

과기독인모임 소식

그리스도의 향기 (생물교육과 부활절 계란 나눔)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교 생물교육과 과기독 모임 '델타'를 섬기고 있는 리더 김언약입니다. 먼저, 《진리는 나의 빛》에 델타의 사역을 소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향기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며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은 어떤 자리,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알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델타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부름 받은 사명을 위해 이번 부활절을 맞아 과자와 초콜릿을 준비하고 나누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먼저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델타의 모임원(이하 델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연중행사처럼 의례적이고 의무적인 부활절이 아니라 함께 과자를 포장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체들에게 부활의 신령한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델타들이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과자 나눔을 준비하면서 정성스럽게 포장한 과자봉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넣은 구절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그래서 과자를 받은 사람들이 과자를 먹기 위해서 손을 봉투에 넣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델타들은 그 말씀이 훗날 과자를 먹은 이들에게 역사하시길, 그리고 그들도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날이 오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눔을 마쳤습니다.



델타는 부활절 나눔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물교육과의 과 전체 행사인 '채집대회'에서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로 학과 사람들을 위해 중보를 하고, 마지막 날 아침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꿀물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학과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인 '열린 모임'을 통해서도 주님의 향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서울대 기독교인 형제자매님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고후2:15)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델타의 형제자매들도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저희 생물교육과 과기독모임 델타를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 되는지요! 다시 한 번 여러분을 사랑하고 감사인사 드립니다!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

김언약 (생물교육 13)

단대기독인연합 소식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기연 잠포!



인기연(인문대 기독인 연합)에서는 매 학기마다 잠포를 합니다. 잠포는 잠을 포기하면서 밤새 인기연 지체들과 가족됨을 누리

며 신나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인기연은 매주 목요일 점심 모임에서 삶 나눔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는 기독인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잠포는 이런 기독인들을 위하여 존재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잠포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먼저 식탁의 교체시간이 있습니다. 잠포 당일 날 저녁을 인기연 지체들과 함께 먹으며 서로 소개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잠포 장소로 출발하는데요, 장소는 항상 학교 주변으로 가곤 합니다. 고시촌의 대학촌교회나 학교 안의 기독인교수회관을 빌려 사용하죠. 장소에 도착해서 하는 활동은 매번 잠포마다 다릅니다. 서로의 신앙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인문대 학생답게 인문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며, 다양한 게임도 합니다. 밤이 더 깊어지면 야식을 먹기도 하고 지친 고학번 분들은 주무시곤 합니다.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박 2일의 잠포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기독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문대의 기독인으로서 인문대를 위한 기도제목이 생기게 되었고 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롬 8:2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8)'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학교 내의 공동체 그리고 더 좁혀 단대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귀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포가 유익한 가장 큰 이유는 단대 내의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연결고리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중에 있는 정기 모임을 해도 자기가 친했던 사람과 계속 교제하기 마련인데 잠포는 이런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2015년 1학기 잠포는 OB멤버인 05학번, 09학번 졸업생 선배님들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인기연의 잠포가 더욱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인문대 기독인들의 연대를 이끌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영화 '그을린 사랑'의 한 대사처럼 '함께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박정우 (서양사학과 14)

선교단체 소식

여기서 우리 사랑을 이야기 하자!! (CCC 여우사이)



살롱!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고 계신지요? 학업과 신앙을 함께 부어잡고 가시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귀한 은혜의 순간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학내에서 있었던 사랑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위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사랑을 이야기하자! CCC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 새 친구, 특히 새내기들을(고학번 분들은 서운하시겠지만) 초청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퍼져있는 여러 대학교 친구

들이 새 친구들을 초대하여 뮤지컬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 그리고 말씀 시간을 통해 모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모임 전에 캠퍼스 별로, 작지만 너무나 소중한 여우사이를 마련하여 학기마다 적게는 세 번에서 많게는 다섯 번 이상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전혀 모르거나, 교회는 다녀봐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행사들과 함께 4영리를 통한 전도의 시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번 2015년 1학기에 가졌던 여우사이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생 10명과 간사님 1명이 한 조를 이루어 새 친구들과 함께 할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저희 조는 '일일 보드 게임방'을 개설해서 맛있는 피자를 먹으며 보드 게임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장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클루'라는 보드게임은 초대된 친구들을 조금은 지루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주어진 단서들을 가지고 범인을 찾아가는 시간은 서로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의 범인을 찾기 위해 서로가 가진 단서를 추리하고 서로의 심리를 파악하려다 보니,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던 사이에서 어느새 장난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새 친구들에게 장난스럽게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었던 보드게임을 마치고 'Falling Plate'라는 전도영상을 보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연락처를 교환한 후 헤어졌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새로운 마음 발을 발견한 소중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때 초대되었던 3명의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는 간사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셨습니다. 매주 적어도 한번 씩은 만나며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시콜콜한 그 친구의 대학생살을 들어주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우사이를 통해 알게 된 한 친구가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다른 2명의 친구도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가 주님을 깊이 영접하게 되어 저와 같이 사랑이야기를 전하는 친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를 사랑하시며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친구가 언제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될지 그 때와 그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기도로 그 시간이 올 해 안에(제가 졸업하기 전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천하보다 소중한 한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순중 (종교 09)

선교단체 소식

다시 복음 앞에 (JOY 복음캠프)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복음이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인지 혹은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부분으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나에게 그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JOY 선교회에서는 매 학기에 한 번씩 1박 2일로 복음 캠프를 추진하면서 이런 애매한, 혹은 내 삶에 실재적이지 않은 복음에 대해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간사님의 복음 설교 강해는 크게 첫째,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

지 둘째, 우리의 본질적인 죄와 그 결과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세 개의 주제로 이루어진다. 주로 새로운 JOYer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대부분의 복음 캠프 일정을 이들에게 맞추긴 하지만 본래는 전체 조이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사실 요즘 JOY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가운데 빠져 있었다. 지난 JOY 겨울수양회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는 갈급함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의 생각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는 지체들이(나를 포함해서) 많았다. 이런 자신의 본질적인 죄악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싶은 그 마음을 직면했을 때 공동체에서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죄악을 직면했을 때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억지로 자신의 기억 속에 묻어둔 채 모른 척 살아가거나 자신의 죄악 된 본성에 낙심한 채 쓰러져버리는 것. 감사하게도 몇몇 지체들에게는 직면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지만, 그래도 역시 공동체 전체적인 분위기는 믿음 없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과거에 갔던 일상적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복음캠프에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을 누렸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끝까지 반역하고 싶어 하는 추악한 나를 보며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

어서 다시금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사랑을 알면서도 모르겠다고 부정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 우리를 JOYer로 부르신, 서울대학교 기독인으로 부르신 것의 의미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낙심하고 넘어져있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힘들지만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며 독려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의 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으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같이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며 공동체와 하나 되어 나아가갈 때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JOY 선교회에서는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분노, 낙심, 절망 등등 힘든 상황 속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많다. 서울대학교 안에도 복음이 너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그 안에 담겨진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많다. 이런 지체들을 돌아보며 같이 붙들어주는 역할을 JOY가, 서기연이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깊이 경험되는 때가 오길 바란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2)"

이하영 (경제 12)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YWAM UDTS)



누군가가 너의 인생에 가장 따뜻한 시간은 언제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UDTS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저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진짜 첫 발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UDTS는 '대학생 예수 제자 훈련 학교'의 약자로 YWAM(예수전도단)에서 진행되는 8개월간의 훈련 과정입니다. 저는 여름기수로 이 학교에 입학해서, 역곡에 위치한 '작흥'이라는 공동 생활공간에서 31명의 동기들, 그리고 훈련을 함께 도와주시는 간사님들과 함께 합숙을 시작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는 강의를 들으며 가족 초청 잔치나 립피스트 등의 행사들을 했고, 2학기에는 작흥에 계속 살면서 학교로 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에는 동북아시아 3개국 일본, 중국, 러시아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훈련의 과정을 간단히 기술한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훈련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것들에 대해서 나뉘보려 합니다.

제가 이 훈련을 결심하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음 속 어딘가에서 이 훈련을 받고 싶다는 열망이 어느 순간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UDTS가 정말 '남의 일'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아보라고 할 때는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의 인생에 있던 상처와 죄로 인한 아픔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원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을 했지요. 모르는 사람들과 산다는 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고 두려움이 있던 데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의심까지 드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을 안고 입방한 저에게는 하루하루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심어져 있던 비 진리들이 지워지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신 받는 믿음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제 안에 뿌리 깊게 있던 상처들, 죄책감들, 열등감들을 제가 아프지 않도록 하나하나 섬세하게 뽑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강의들 통해서, 목상을 통해서, 간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더 이상 너를 그렇게 비 진리 안에 놔두실 수 없었고, 너무나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너를 이 자리에 불렀다"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랑과 용납을 거치면서 '천국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것들 하나하나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힘이 들기도 했던 힐링 시간은 자유함과 치유를 누리는 순간이었고, 정기적인 '립피스트' 라는 이름의 축제는 저에게 할 때마다 설레고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가족 초청 잔치를 하면서 가정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더욱 품게 되는 시간이 있었고, 동기들과 모여 밤에 영화를 보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애찬식을 하면서 평생 위탁할 것을 약속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침묵시간'입니다. UDTS 기간 중 1주간 저는 저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교의식, 열등의식'으로 씨름하느라, 침묵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힘든 훈련 이기는 했지만 그 어떤 시간 보다 하나님께만 저의 안정감을 두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찾으려고 매달리고, 집중하는 시간이었고 지면상 다 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신실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일주일에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침묵시간이 아니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순간들이 내 평생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기쁜 것인지 경험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겨울의 전도여행은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돌면서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통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역사적 장소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꿈으로, 말씀으로 역시 다양하게 말씀하셨고 하루하루 너무 많은 것들을 보아서 넘칠 정도였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평화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

어졌음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는 것,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들이 이루어졌거나 현재 진행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선교지가 바로 이곳 '서울대학교'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곳에 예배하는 것이 '선교' 이기에, 이 학교에서 계속 예배자로 서있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YWAM의 대표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표리더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잘해나가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며 소중한 지체들과 함께 진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캠퍼스에 대한 마음은 제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같습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서울대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서울대학교, 《진리는 나의 빛》 그 고백에 맞게 정말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서울대학교가 되도록 중보자로 또한 예배자로 서있고 싶습니다.

UDTS의 마지막 립피스트에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을 느끼고, 저의 예배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삶 구석구석 기쁨이 생겼고 동시에 주님 주신 소망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훈련 이후에 여전히 저는 같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같은 걱정을 하기도 하고, 같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달라진 것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신,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앞으로도 제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민지 (노어노문 13)

인기연 세미나



2015년 5월 18일 오후 6시 30분에 인문대기독교인연합 주관으로 두산인문관(인문대학 8동)에서 탈북시인 최진이 작가와의 대화가 있었다. 주제는 “북한 문학에 나타난 여성과 종교: 시인 럽형미의 작품을 중심으로”였다. 20여명의 학생과 교수님이 참여했고, 60분 정도의 강연과 그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조찬기도회



2015년 5월 12일 오전 7시에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기독교수협의회 주최로 서울대학교 조찬기도회가 열렸다. 서울대기독교인연합 학부 및 대학원생 모임, 교직원신우회, 기독교동문회, 선교단체 연합, 서울대학교교회, 대학총교회 등이 함께 했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세 가지 준비(딤후 2: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입생의 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온 삶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15학년 김귀인입니다. 우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결국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제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수님과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기 전부터 합격한 이후로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서울대학교에 정말로 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제일 낮은 반에서 수준별 수업을 듣던 저는 선생님들로부터 무시를 받아왔었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처럼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했던 봉사활동들이 쌓이고 쌓여 제 생활기록부는 30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에 위의 성경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가 살아온 고등학교 생활을 녹여냈고 면접에서도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면접을 잘 치르고 난 후 가족과 함께 감사기도를 드렸고, 합격일 까지 기도 드렸습니다. 당일이 되자, 실시간 검색어에서 서울

대학교 입학처가 단연 1위를 차지했고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차분히 하고 서울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가 켜지고 인적사항을 다 입력한 후에 저희 가족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대에 합격시켜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많은 일들을 하시겠다”고 제 부모님은 다짐하셨고 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합격자 조회를 하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합격’이라는 영광스러운 두 글자였습니다.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외침이 저절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숙사에까지 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은 배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서울대학교 기독교인 OT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새 학기를 주님 안에서 시작해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OT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그날이 새터가 끝난 날이라 심신이 지쳐있었지만 정말로 재미있었던 레크리에이션에 열심히 참여했고, 복학생의 쓸쓸함을 담았던 연극,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인 졸업과 연애를 재미있게 풀었던 노래를 정말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나 깊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캠퍼스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분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일상적인 고민과 진로에 관한 고민들을 하나님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회 안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일, 아프리카의 기아들을 위해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하시겠다는 분 등등 많은 좋은 선배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새로운 꿈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귀인 (자유전공 15)

기독교 대학원생 수련회

2015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간 기독교 대학원생 수련회가 있었다. “Arise & Shine (본문 사60:1)”을 주제로 관악 학생생활관에서 진행되었다. 강사는 나들목 교회 김형국 목사님과 미 남침례 순회선교사이신 윤무용 선교사님이다.

